

# 행복을 굽는 빵마을 즐거움 빵빵 터지네



거북이빵



돌가마 브레드



돌가마 만주

### 충남 천안 '뚜주루 빵돌가마마을'

홍타령의 고장 충남 천안은 예로부터 삼남의 분기점이였다. 현재도 KTX, SRT, 국전철과 고속도로가 지나고 교통 요충지다.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사람과 물자와 돈이 쪼개 풀처럼 흐르는 천안에는 삼남은 물론 수도권까지 전국을 호령하는 빵테마파크가 있다.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경부선 철로변 언덕에 자리한 '뚜주루 빵돌가마마을'이다. 뚜주루 빵돌가마마을은 국내 최초로 빵돌가마에서 빵을 굽는 마을이다.



빵장작가마

◇전국 최대 빵테마파크=2만 9700여㎡에 달하는 빵돌가마마을은 단일 빵테마파크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독특한 외관의 빵전문관이 빵지 순례객들의 성지임을 조용히 웅변한다. 빵전문관에는 2013년 도입한 국내 최초의 빵돌가마 1호가 있다. 1호 빵돌가마는 스페인 화산석을 이용해 외국의 전문업체가 시공했다.

빵전문관에서는 빵돌가마에서 구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품미 가득한 빵들과 갓 구워낸 신선하고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다. 빵전문관의 인기 제품은 돌가마만주와 거북이빵이다. 돌가마만주는 직접 끓인 천안팔과 돌가마로 구워 품미가 살아 있다. 거북이빵은 천연효모를 14시간 이상 발효시켜 만든다.

◇이국적 양식의 건물들=케이크하우스, 천안쌀제분소, 뚜주루체험관, 빵장작가마, 어린이베이커리, 빵마을카페, 천안쌀케익23, 먹는꽃-허브하우스 등이 별도 건물로 웅기웅기 모여있다. 해외 기술로 직접 시공한 빵장작가마는 슬로푸드의 철학을 담아 300도 참나무 장작의 열로 정통 방식 그대로 신선한 빵을 구워낸다. 뚜주루체험관은 아트막한 언덕에 잔디지붕이 얹혀 흡사 영화 '반지의 제왕' 속 호빗마을을 연상케한다. 빵마을카페는 국내 최대의 빵돌가마 2호가 자랑이다. 빵마을카페는 매장을 둘러싼 오픈 키친에서 분주히 빵 굽는 모습과 탁 트인 밑발을 바라보며 빵돌가마 2호에서 구워진 다양한 빵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빵돌가마마을의 오솔길 같은 보행로를 따라 이국적 양식의 건물 사이를 거닐다 보면 몸과 마음은 동네 산책자처럼 한결 여유로워진다.

2만 9700여㎡ 전국 최대 빵테마파크  
케이크하우스·카페 등 이국적 건물 눈길  
아트막한 언덕에 웅기웅기 동화마을 연상

돌가마만주·거북이빵 '대표 인기 제품'  
도넛·쿠키 등 1시간30분이면 체험 가능  
맛·재미 넘쳐나는 '빵지 순례 1번지'

◇체험거리·볼거리도 풍성=지난해 어린이베이커리를 새로 문 열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베이킹 체험은 도넛이나 쿠키 등 만들기 키트를 구입해 자율적으로 가능하다. 체험은 굽는 시간 20분을 포함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토·일요일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린이베이커리를 나서면 먹는꽃-허브하우스가 지척이다. 허브하우스는 빵돌가마마을의 케이크와 과자, 음료 등에 사용하는 꽃과 허브 40여 종을 재배한다. 작은 식물원을 담은 허브하우스에는 스피어민트, 박하, 자스민 등 다양한 허브가 가득하다. 빵돌가마마을은 365일 연중 개방한다. 지난해는 150만여 명이 다녀갔다. 빵돌가마마을은 여러 장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별도 전시장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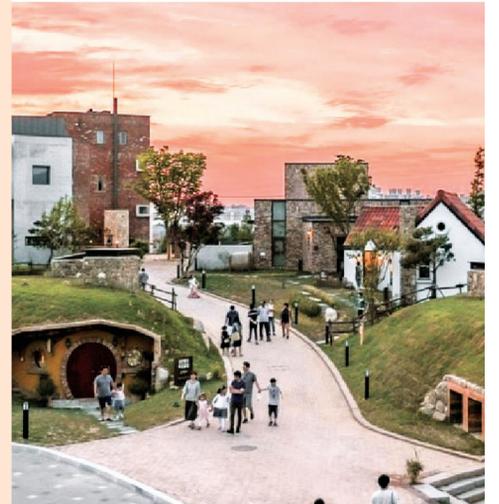
빵전문관 맞은 편이 케이크하우스 2층을 지역 예술인들 전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한다. 오는 28일까지는 늘봄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의 '제2회 회원전'이 한창이다. 20명 참여 작가의 캘리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오는 5월에는 특별한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된다. 빵돌가마마을 동쪽에 조성한 재배장에서 천안밀 수확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네빵집의 새로운 전형 제시=빵돌가마마을을 운영하는 뚜주루는 동네빵집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뚜주루(toujours)는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뜻의 프랑스 말이다. 간혹 뚜주루를 대기업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헷갈리거나 뚜주루를 뚜레쥬르의 모방 브랜드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뚜주루가 서울 용답동에 첫 매장을 오픈한 해는 1992년이었고 뚜레쥬르가 첫 매장을 연 것은 그보다 5년 뒤인 1997년이었습니다. 처음에 뚜레쥬르는 저희 뚜주루를 인수하겠다고 매각을 제의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뚜레쥬르가 뚜주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불허되었을 때 뚜주루는 뚜레쥬르의 요청으로 상생 협력 계약서를 체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뚜레쥬르 상표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뚜주루가 뚜레쥬르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호 뚜주루 대표의 설명이다.

◇지역사랑 소통 각별=눈물 젖은 빵이 훗날 성공의 밑거름이 되듯 빵돌가마마을의 탄생과 기반이 된 뚜주루의 성장에도 아픔과 시련이 있었다. 윤석호 대표는 서울에서 전형적인 동지 내물림의 어려움을 겪은 뒤 1998년 천안시 동남구에 뚜주루 성장점을 개설하며 천안시대를 개막했다. 이후 거북이집(2008년), 돌가마점(2013년), 천안 갤러리 센터시티 입점(2015년)을 거쳐 오늘날 빵돌가마마을을 완성했다.

천안 빵지 순례 1번지에 등극한 빵돌가마마을과 뚜주루 각 점포는 지역과 상생협력에도 진심이다. 팔과 쌀, 무농약팥기, 고구마와 밀 등을 천안의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에서 전량 공급받는다. 당일 생산한 빵만 판매, 식용유는 하루만 사용, 팔은 매일 직접 끓여 사용하는 원칙도 개점 이래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8월은 광복의 달을 기념해 국군 휴가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군 병사들에게 '815 돌가마브레드' 교환권을 제공하는 캠페인도 가졌다. 천안시 등과 손잡고 올해부터는 천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천안쌀을 제분해 만든 케이크를 선물한다. 뚜주루는 사람 손도 귀하게 여긴다. 빵 장인 등 일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다. 자부심과 애정 갖고 일하는 빵 장인과 전문가들 모습도 빵돌가마마을의 고유한 아름다운 풍경이다. /대전일보=윤평호 기자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경부선 철로변 언덕에 자리한 '뚜주루 빵돌가마마을'은 국내 최초로 빵돌가마에서 빵을 굽기 시작했다. 사진은 빵돌가마마을 전경. <뚜주루 제공>



허브하우스.



천연과일 아이스크림 가게.



어린이 베이커리.